

# 풍수 사신사

## 음·양택적 의미의 재해석

천인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풍수지리학 전공

cheonih@naver.com

- I. 머리말
- II. 음택 풍수의 사신사
- III. 양택 풍수의 사신사
- IV. 음·양택 풍수 사신사의 재해석
- V. 맺음말

## I. 머리말

풍수는 죽은 자의 거소를 선택하는 음택, 산 자의 거소를 선택하는 양택 및 도시나 촌락을 선택하는 양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음택 이론이 양택과 양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는데, 음택과 양택 이론은 그 구성요소와 논리가 다르다는 것은 각종의 문헌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신사의 구성이다.

음택풍수에서 사신사(四神砂)란 혈(穴)을 중심으로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산, 특히 4개의 산과 관련되는데 혈 뒤를 현무, 앞을 주작, 왼쪽을 청룡, 오른쪽을 백호라고 하며 대부분 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신은 동양의 천문학이 그 시원(始原)이었다. 사신 형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물은 사신 체계의 성립과정이 밤하늘의 28수 별자리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sup>

사신은 사령(四靈), 사상(四象), 사궁(四宮), 사수(四獸)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사상과 사궁은 하늘의 28수를 7수씩 사방에 배분하여 동궁창룡(東宮蒼龍), 서궁백호(西宮白虎), 남궁주조(南宮朱鳥), 북궁현무(北宮玄武)의 성상에 대한 지칭으로 사신은 형성은 결국 동양 전통의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up>2)</sup>

『논형(論衡)』에는 “동방은 목이며 그 별은 창룡이다. 서방은 금이며 그 별은 백호이다. 남방은 화이며 그 별은 주조이다. 북방은 수이며 그 별은 현무이다. 하늘에는 네 별의 정기가 있으니 내려와 네 짐승의 모양을 이루었다. …… 창룡과 백호는 서로 해치지 아니하고 주조와 현무도 서로 해치지 아니한다.”<sup>3)</sup>고 하여 사신의 방위 및 오행의 배당이 천문학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창룡과 주조는 풍수에서는 청룡과 주작으로 대체된다. 『회남자』에는 소위 천수(天數)라는 것은 좌측은 청룡, 우측은 백호, 앞은 주작, 뒤는 현무이다<sup>4)</sup>고 하여

1) 김일권, 「사신도 형식의 성립과정과 한대의 천문성수도 고찰」, 『고구려연구』 11(2001), 111쪽.

2) 이성구, 「사신의 형성과 현무의 기원」, 『중국고중세사연구』 19(2008), 2쪽.

3) 『論衡』, 「物勢篇」. “東方木也, 其星蒼龍也, 西方金也, 其星白虎也, 南方火也, 其星朱鳥也, 北方水也, 其星玄武也, 天有四星之精, 降生四獸之體, …… 案龍虎不相賊, 鳥龜會不相害.”

현재 풍수의 사신사와 일치한다.

풍수에서의 사신사는 『호수경(狐首經)』 및 『금낭경(錦囊經)』 또는 『장서(葬書)』 등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주로 음택을 선정하는 원리로서 혈을 둘러싼 4개의 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에서는 음택이론이 양택이나 양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양택서와 일본의 가상서(家相書)에는 산천도택(山川道澤)이라는 사신상응(四神相應)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무를 산, 청룡을 강, 백호를 도로, 주작을 연못으로 구성하는 산천도택이 구비되어 있는 장소를 사신상응의 땅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택경(宅經)』, 『사마두타지맥결(司馬頭陀地脉訣)』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작정기(作庭記)』, 『보케내전(藪藪内典)』 등과 이후 많은 가상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한국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조선 후기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나고 있다.

음택과 양택의 사신사가 다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본 및 한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견해가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우 먼저 양택 사신사 자체의 연구는 아니지만 『작정기』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양택 사신사를 언급한 타타라 미하루(多々良美春)<sup>5)</sup>, 니시가키 야스하코(西垣安比吉),<sup>6)</sup> 괴템(Goethem)<sup>7)</sup>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양택 사신사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일본 헤이안쿄우(平安京: 현재 교토)의 풍수를 산천도택의 사신사로 논의한 아시카가 켄료(足利健亮),<sup>8)</sup> 이다(飯田)를 사례로 도시계획의 기축의 설정에서 풍수공간을 산천도택 사신사로 논의한 마쓰이 고이치(松井幸一)<sup>9)</sup>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영조

4) 『淮南子』, 「兵略訓」. “所謂天數者,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5) 多々良美春・元貞喜・白井彦衛, 「伝統的庭園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 『千葉大園学報』 46(1992).

6) 西垣安比吉, 「風水四相からみた『作庭記』-覺書き」,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1992年 8月).

7) Ellen Van Goethem, “Pleasing the Four Gods: Shijin sōō(四神相應), Site Selection and Site Adaptation.”, Cultural Crossroads,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SAHANZ Conference, CD-rom, 2009; Ellen Van Goethem, *Shijin Sōō 四神相應 in East Asia: An Urban or Private Site Selection Model*(九州大学教育研究プログラム・研究拠点形成プロジェクト, 2014).

8) 足利健亮, 「古代都城・平安京の都市計劃と四神」, 『地理學研究』 10(1985); 足利健亮, 『景観から歴史を読む地図を解く楽しみ』(1998).

9) 松井幸一, 「城下町における都市計劃と基軸の設定 -飯田を事例として-」,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45(2012).

택경(營造宅經)』과 일본의 『작정기』에 나타난 양택 사신사와 사신사 대체 식물에 대한 미즈노 아키(水野杏紀),<sup>10)</sup> 일본 고대 도시에 적용된 강서과 풍수와 산천도택의 사신사에 대한 스즈키 이케이(鈴木一馨)<sup>11)</sup>의 연구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작정기』의 작정 원리를 규명하는 가운데서 산천도택 사신상응을 논의한 김승윤,<sup>12)</sup> 일본의 평안경의 사신상응과 한국 한양의 사신사를 비교 검토한 천인호<sup>13)</sup>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양택 사신사에 대한 문헌적 근거 제시와 음택 사신사와는 다른 의미와 존재를 규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음택과 양택 사신사의 차이를 규명하거나 양택 사신사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음택 사신사와 양택 사신사를 중심으로 양 풍수 이론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고 전개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양택 사신사의 본질과 구성 이유 및 논리를 분석하고, 양택 사신사와 음택 사신사와의 본질적 차이를 규명할 것이다.

## II. 음택 풍수의 사신사

풍수 사신사에 대한 기록은 『호수경』, 『장서』 또는 『금낭경』 등에 나타난다.<sup>14)</sup> 먼저 『호수경』에서는 “청룡은 왼쪽에서 감싸고(索) 백호는 오른쪽에 거하며(厓), 주작은 앞에서 춤을 추고(舞), 현무는 뒤에서 진회(鎭)한다.”<sup>15)</sup>고 하여 혈을 중심으로 사신사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양과

10) 水野杏紀, 「四神相応と植物: 『營造宅經』と『作庭記』を中心として」, 『人間社会学研究集録』 3(2007).

11) 鈴木一馨, 「日本古代・中世期の風水術における四神相応について」, 『宗教研究』 359(2009).

12) 김승윤, 「作庭記의 작정원리 연구: 풍수론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1(6)(2013).

13) 천인호, 「국도(國都) 풍수의 한일비교 연구」, 『국학연구』 25(2014).

14) 『장서』와 『금낭경』은 사실상 동일한 책이다. 그러나 일부 내용과 주석의 차이가 있고, 특히 백호에 대해서 『장서』는 ‘馴類’, 『금낭경』은 ‘蹻蹻’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 분리한 것이다.

15) 『狐首經』, 『山元篇』. “靑龍索左, 白虎居右, 朱雀舞前, 玄武鎮後.” 풍수 사신사와 관련한 내용은 『장서』 또는 『금낭경』에 등장한다. 그런데 장성규·김혜정은 『장서』에서 인용한 經은 『호수경』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고, 송·원대에는 『호수경』을 最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장사의 큰 법은 왼쪽은 청룡이고 오른쪽은 백호인데 청룡은 꿈틀거려야[蜿蜓] 하고 백호는 순하게 길들여져 고개를 숙여야[馴順] 한다. 뒤는 현무이고 앞은 주작인데 현무는 머리를 드리워야[垂頭] 하고 주작은 빙빙 돌면서 춤추어야[翔舞] 한다. 청룡이 등지면[錯] 주인을 해롭게 하며 백호가 웅크리면[蹲] 시신을 문다고 한다. 주작이 춤추듯이 날지 않으면[不舞] 날아 올라가 버리며 현무가 머리를 드리우지 않으면[不垂] 시신을 거부하는 것이다.”<sup>16)</sup>

즉, 현무수두(玄武垂頭), 청룡완연(靑龍蜿蜓), 백호순순(白虎馴順), 주작상무(朱雀翔舞)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장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무는 머리를 드리워야[垂頭] 하고 주작은 빙빙 돌면서 춤추어야[翔舞] 한다. 청룡은 꿈틀거려야[蜿蜓] 하고 백호는 순하게 길들여져 머리를 숙여야[馴順] 한다. 형세가 이와 반대라면 마땅히 파멸한다. 그러므로 백호가 웅크려 있는[蹲] 모양이면 시신을 물어뜯는 것이고 청룡이 웅크린[踞] 모양이면 질투하는 모양이다. 현무가 머리를 드리우지 않으면[不垂頭] 시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주작이 빙빙 돌면서 춤추듯이 날지 않으면[不翔舞] 날아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sup>17)</sup>

즉, 현무수두, 청룡완연, 백호순부(白虎馴頰), 주작상무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호수경』의 조건과 거의 동일하다.

반면, 『금낭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릇 장사를 지낼 때는 왼쪽을 청룡으로 오른쪽을 백호, 앞을 주작으로 뒤를 현무로 한다. 이는 전후좌우의 산은 네 마리 짐승으로서 모두 형처에서 본 것을 말한다. 현무는 모양이 머리를 드리우고[垂頭] 주작은 빙빙 돌면서 춤추어야[翔舞] 하고, 청룡은 꿈틀거려야[蜿蜓] 하고, 백호는 웅크려 걸터앉아야[蹲踞] 한다. 그런데 이 형세가 반대로 있으면 집안이 망하고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백호가

---

풍수지리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신사 관련 기록에 있어서는 『호수경』이 『장서』 또는 『금낭경』보다 이전의 기록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성규·김혜정, 「호수경의 문헌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9(1)(2010) 참조.

16) 『狐首經』, 「葬元篇」. “葬事大法, 左爲靑龍, 右爲白虎, 欲其蜿蜓, 欲其馴順, 後爲玄武, 前爲朱雀, 欲其垂頭, 欲其翔舞, 靑龍若錯, 名曰疾主, 白虎若蹲, 名曰衛屍, 雀不翔舞, 名曰騰去, 玄不垂頭, 名曰拒屍.”

17) 『葬書』, 「外篇」, 四庫全書本. “玄武垂頭, 朱雀翔舞, 靑龍蜿蜓, 白虎馴頰, 形勢反此, 法當破死, 故虎蹲謂之衛尸, 龍踞謂之嫉生, 玄武不垂者拒尸, 朱雀不舞者騰去.”

몸을 둘러 있는[繞] 것은 시신을 물어뜯으려 함이요, 청룡이 걸터앉아[踞] 있으면 주인을 시기하는 것이요, 현무가 머리를 드리우지 않았다는 것(不垂) 시신을 거부한다는 것이요, 주작이 춤추지 않는다는 것(不舞)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sup>18)</sup>

즉, 『금낭경』에서는 현무수두, 주작상무, 청룡완연, 백호준거[白虎蹲踞]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무, 주작, 청룡은 『호수경』 및 『장서』와 유사하나, 백호는 준거해야 한다고 하여 『호수경』 및 『장서』와는 다르다.

『호수경』, 『금낭경』 및 『장서』를 비교하면 첫째, 백호의 긍정적 조건에 차이가 있다. 즉 『호수경』은 백호순순, 『장서』는 백호순부라고 하여, 백호는 순하게 길들여져 고개를 숙인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낭경』에서는 백호준거라고 하여, 백호는 웅크려 걸터앉은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백호의 부정적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즉, 『호수경』과 『장서』에서는 백호가 웅크린 모습[蹲踞]이면 시신을 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장서』의 주석에서는 “(백호는) 웅크린[蹲踞] 모습의 흉함이 없어야 하며 백호가 화가 나듯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쳐들고 노려본다면 재앙의 조짐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sup>19)</sup>고 하여 백호가 준거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낭경』에서의 백호가 웅크려 걸터앉은 모양이 긍정적 조건이라면, 『호수경』과 『장서』에서는 웅크려 걸터앉은 모양은 시신을 무는 모양이기 때문에 부정적 조건으로 보고 있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중국의 고전에서는 표1과 같이 청룡의 경우 춤추듯 뛰어올라야 한다[踴躍]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sup>20)</sup>와 서리어 꿈틀거린다[蟠蜿]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sup>21)</sup>도 있으나 백호의 경우 순부로 표현한 경우는 『호수경』과 『장서』이며, 다른 고전들은 준거를 백호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錦囊經』第五, 「四勢篇」, 奎章閣本. “夫葬, 以左為青龍, 右為白虎, 前為朱雀, 後為玄武, 此言前後左右之四獸, 皆自立穴處言之, 玄武垂頭, 朱雀翔舞, 青龍蜿蜒, 白虎蹲踞, 形勢反此, 法當破死, 故虎繞 謂之脚尸, 青踞, 謂之嫉主, 玄武不垂者拒尸, 朱雀不舞者騰去.”

19) 『葬書』, 「外篇」. “類者, 低頭俯伏之義, 言柔順而無蹲踞之凶也, 明堂經云, 龍蟠臥而不驚, 是為吉形 虎怒蹲視, 昂頭不平, 禍機中藏.”

20) 程道生 撰, 『遁甲演義』卷3. “白虎蹲踞, 青龍踴躍, 前遮後衛.”

21) 歐陽詢 撰, 『藝文類聚』卷77. “謂右左則青龍蟠蜿, 右則白虎蹲踞”; 梅鼎祚輯, 『釋文紀』卷30. “青龍蟠蜿, 右則白虎蹲踞.”; 徐陵撰, 『徐孝穆集箋注』卷5. “左則青龍蟠蜿, 右則白虎蹲踞.”; 『漢魏六朝百三家集』, 卷一百三下. “左則青龍蟠蜿, 右則白虎蹲踞.”

표1-고전별 사신사의 조건

구분		저자, 시기	현무	주작	청룡	백호
호수경 (狐首經)	긍정적 조건	미상	垂頭	翔舞	蜿蜒	馴順
	부정적 조건		不垂頭	不翔舞	錯	蹲
금낭경 (錦囊經)	긍정적 조건	郭璞(陳)	垂頭	翔舞	蜿蜒	蹲踞
	부정적 조건		不垂	不舞	踞	繞
장서 (葬書)	긍정적 조건	郭璞(陳)	垂頭	翔舞	蜿蜒	馴順
	부정적 조건		不垂	不舞	踞	蹲踞
서호목집전주(徐孝穆集箋注)		徐陵(陳)	-	-	蟠蜿	蹲踞
에문류취(藝文類聚)		歐陽詢(唐)	-	-	蟠蜿	蹲踞
비아(埤雅)		陸佃(宋)	垂頭	翔舞	蜿蜒	蹲踞
둔갑연의(遁甲演義)		程道生(明)	後衛	前遮	踴躍	蹲踞
산당사고(山堂肆考)		彭大翼(明)	-	翔舞	蜿蜒	蹲踞
석문기(釋文紀)		梅鼎祚(明)	-	-	蟠蜿	蹲踞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張溥(明)	-	-	蟠蜿	蹲踞
명문해(明文海)		黃宗義(清)	垂頭	翔舞	蜿蜒	蹲踞

주: 각 고전의 저자와 저작 시기는 『四庫全書』의 提要를 참조하였음.

그런데 주작이나 청룡·백호는 물(水)로 대체할 수도 있다. 『금낭경』과 『장서』에서는 물로써 주작을 삼으려 한다면 여율이 빠르고 격하게 흐르는 것을 꺼리는데 이를 슬피 우는 것이라고 한다.<sup>22)</sup>고 하였다. 이는 물로써 주작을 대체할 수 있는데 급류가 될 경우 슬피 우는 듯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설심부』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항시 사람이 우는 것처럼 들린다면 죽거나 재앙을 입을 일을 자주 보게 된다.”<sup>23)</sup>고 하여 물이 흐르되 슬피 우는 소리는 재앙이 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이상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풍수고전의 사신사는 음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호수경』에서는 ‘장사대법(葬事大法)’, 『금낭경』과 『장서』는 ‘부장(夫葬)’이라고 하여 그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즉 시신에 대한 것이다. 또한 백호나 청룡이 부정적 조건일 때 시신을 문다(叩門)던가, 시신을 거부한다(拒門)는 등이 용어에서도 결국 음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葬書』, 「外篇」. “以水爲朱雀者, 忌乎湍激, 謂之悲泣.”; 『錦囊經』, 第五, 「四勢篇」. “夫以水爲朱雀者, 忌夫湍激, 謂之悲泣.”

23) 『雪心賦辯說正解』, 「總論山水吉凶」. “常聞水泣者, 喪禍頻見.”

### Ⅲ. 양택 풍수의 사신사

양택풍수의 사신사는 현무를 산(山), 청룡을 물(川), 백호를 도로(道), 주작을 연못(澤)이라는 산천도택(山川道澤)을 의미하며 음택 풍수의 사신사와 그 대상과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 양택 사신사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특히, 일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대부분의 가상서에서의 풍수 사신사는 산천도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천도택으로 구성된 사신사에 대한 현재로서 가장 오래된 문서는 돈황(敦煌) 지역에서 발견된 『택경(일명 돈황택경)』이다.

“『황제택경』에 말하길, 황제가 지전(地典)에게 물었다. 무릇 사람의 거택은 어떠한 것이 크게 길하고 자손과 부귀를 누리며 어떠한 것이 흉하고 재앙이 그치지 않고 더해 가는가? 이에 지전이 대답하기를 왼쪽에 청룡이 있고 오른쪽에 백호가 있고 앞에 주작이 있고 뒤는 현무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전에게 물었다. 무엇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하는가? 지전이 답하기를 왼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流水)이 있으면 청룡이라고 하며, 오른쪽에 남쪽으로 가는 큰 도로(大道)가 있는 것을 백호라고 하며, 앞에 연못(汙池)이 있는 것을 주작이라고 하며, 뒤에는 구릉(丘陵)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합니다. 무릇 사람의 거택은 사신이 갖추어져야 합니다.”<sup>24)</sup>

그리고 같은 돈황문서(敦煌文書)인 『사마두타지맥결』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릇 거택은 왼쪽의 청룡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流水)이 있어 좌청룡이라고 하며, 오른쪽의 백호는 서쪽에 큰 도로(大道)가 있어 우백호라 하며, 앞의 주작은 남쪽에 연못(汙池)이 있어 전주작이라고 하고, 뒤의 현무는 큰 구릉(大丘陵)이 있어 현무라고 한다.”<sup>25)</sup>

『사마두타지맥결』의 저작 시기는 당대(唐代)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의 말미에 ‘謹議三教不齊論 劉晏述’라고 되어 있어 유안(劉晏, 715-

24) “皇帝宅經云，皇帝問地典曰，凡人居宅何者大吉，子孫富貴，何者為兇，禍殃不止重累，左青龍，右白虎，前朱雀，後玄武，皇帝問地典，何為青龍白虎朱雀玄武，地典答曰，左有南流水為青龍，右有南行大道為白虎，前有汙池為朱雀，後有丘陵為玄武，凡宅得四神備足。”水野杏紀(2007), 앞의 논문, 166쪽에서 재인용. 이 내용은 사고전서본 『택경』에는 없다.

25) 『司馬頭陀地脉訣』. “凡居宅，左青龍，東有南流水，是左青龍，右白虎，西大道，是右白虎，前朱雀，南有汙池，是前朱雀，後玄武，北有大丘陵，是玄武.”

780)의 저작임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중국에서는 이후 『유설』에서 청룡을 집의 왼쪽에 흐르는 물(流水), 백호를 오른쪽의 긴 도로(長道), 주작을 앞의 연못(汙池), 현무를 뒤의 구릉(丘陵)이라고 한 기록<sup>27)</sup>이 나타난다. 『유설』은 남송(南宋, 1127-1279)대 증조(曾慥)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신사 구조가 『돈황택경』, 『사마두타지맥결』과 동일하다.

이후 중국 고전에서는 이와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원대(元代) 『영조택경』, 명대(明代) 『양택십서』에 나타나는데, 사신사 관련 기사는 『유설』과 동일하다.

“집에는 왼쪽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청룡이라고 하며, 오른쪽에는 긴 도로(長道)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백호라고 하며, 앞에는 연못(汙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작이라고 하며, 뒤에는 구릉(丘陵)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현무라고 하여 가장 귀한 땅이다.”<sup>28)</sup>

『양택십서』에는 이를 그림<sup>1</sup>과 같은 집은 “주작, 현무, 청룡, 백호의 사신이 완전하다. 남자는 부귀해지고 여자는 현명해진다. 관록이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룬다. 후대 자손들의 복이 오랫동안 계속된다.”<sup>29)</sup>고 하여 산천도택의 완전한 사신사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귀, 관록, 흥복이 도모된다고 하였다.

26) 寺本建三, 「敦煌文書『司馬頭陀地脉訣』和譯(上)」, 『史迹と美術』 83(2)(史迹美術同致会, 2013), 47쪽. 劉晏은 당(唐)의 정치가로서 안록산의 난 이후 궁핍해진 정부재정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曾慥編, 『類說』 卷49, 「地理新書」. “宅欲左有流水謂之青龍, 右有長道謂之白虎, 前有汙池謂之朱雀, 後有邱陵謂之玄武為取貴地, 凡宅, 東有流水達江海吉, 東有大路貧, 北有大路凶, 南有大路富貴.” 曾慥(?-1155)는 자는 端伯, 호는 至游子이며 晉江(현 福建泉州) 사람으로 도교에도 능통하였고 시인이기도 하였으며 尚書郎의 벼슬을 지냈다고 한다.

28) 『營造宅經』. “屋宅舍欲左有流水, 調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有汙池,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 為最貴地.”; 『陽宅十書』, 「論宅外形第一」. “凡宅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道, 謂之白虎, 前有汙池,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 為最貴地.” 『營造宅經』은 『居家必用事類全集』의 「丁集·宅舍」에 수록되어 있는데 택지 및 주택에 관한 다양한 길흉 판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내용은 『양택십서』와 거의 유사한데 저자 미상의 元代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의 서명은 『周書秘奧營造宅經』이다.

29)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朱元龍虎四神全, 男人富貴女人賢, 官祿不求而自至, 後代兒孫福連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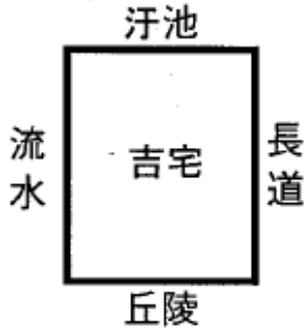


그림1-산천도택 사신사

출처: 『陽宅十書』, 「陽宅外形吉凶圖說」.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산천도택 사신사는 『택경』, 당대(唐代)의 『사마 두타지맥결』, 송대(宋代)의 『유설』, 원대의 『영조택경』, 명대의 『양택십서』까지 줄곧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음택이론과 다른 양택이론이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국대전』에는 조선시대 잡과의 지리와 선발과목으로 『청오경』, 『금낭경』, 『감룡경』, 『의룡경』, 『명산론』, 『동림조담』, 『지리문정』, 『착맥부』 등의 형세위주의 과목과 이기론인 『지리신법』이 있었는데 사실상 음택위주의 경전이었다.

기록과 문헌만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양택 사신사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영조대 실학자 홍만선이 집필한 『산림경제』에는 『거가필용(居家必用)』을 인용하여 “무릇 주택에 있어서, 왼편에 물이 흐르는 것[流水]을 청룡이라 하고, 오른편에 긴 도로[長途]가 있는 것을 백호라 하며, 앞에 연못[汚池]이 있는 것을 주작이라 하고, 뒤에 구릉[丘陵]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곳이 가장 좋은 터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임원경제지』에서도 『산림경제』와 거의 유사한 기사가 발견된다. “주택의 왼편으로 흐르는 물[流水]을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편에 큰 길[大道]이 나 있는 것을 백호라 하며, 집 앞에 연못[池]이 있는 것을 주작이라 하고, 집 뒤에 구릉[丘陵]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여 이러한 지형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만약 땅에 이러한 상(相)이 없으면 흉하다”<sup>31)</sup>고

30) 洪萬選, 『山林經濟』, 「卜居篇」. “凡住宅, 左有流水, 謂之青龍, 右有長途, 謂之白虎, 前有汚池, 謂之朱雀, 後有丘陵, 謂之玄武, 爲最貴之地.”

하였다. 이 기사는 『영조택경』을 인용한 것이다.

‘일본까지 전해졌던 『택경』과 『사마두타지맥결』과 같은 양택서가 한국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택중심의 풍수의 영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한국의 양택관련 사신사는 중국 원대(元代)의 『영조택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조선 후기의 각종 문집에 『택경』을 인용한 기사가 보인다. 즉,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영조택경』과 『산림경제』와 동일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으며,<sup>32)</sup> 황현(黃玹, 1855-1901)의 『매천집』에는 “『택경』으로 새로 집을 쳐보니 큰 집을 충분히 지을 만하였고 평소 생각했던 건축 구상이 넓었기에 새동지 같은 작은 집에 만족하지 않았다”<sup>33)</sup>고 하여 집을 지을 때 『택경』을 참고하였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양택 사신사와 관련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에서의 양택 사신사에 대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택 사신사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첫째, 양택 사신사는 한국에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택 위주의 사신사 구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미약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둘째, 조선 후기에 와서야 중국의 양택서가 유입되어 기록에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이 유추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산천도택의 양택 사신사는 『작정기』와 『보궤내전』에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 저작의 사신사 관련 내용은 중국의 『택경』과 『사마두타지맥결』의 사신사 관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특히 『작정기』에는 “경에 이르기를 집의 동쪽에 흐르는 물(流水)을 청룡이라고 하며, 서쪽에 큰 도로(大道)를 백호라고 한다. 남쪽의 연못(池)을 주작이라고 하며, 북쪽의 산(岳)을 현무라고 한다. 사신사의 땅에 산다면 관직과 복록이 갖추어지고 무병장수한다.”<sup>34)</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31) 『林園經濟志』, 「相宅志」,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돌베개, 2005), 110쪽.

3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樹木」. “宅經, 凡家宅東種桃柳, 南種梅棗, 西種榆槐, 北種奈杏, 宅東有杏凶, 宅北有李, 宅西有桃, 皆爲淫邪, 宅西有柳, 爲被刑戮, 宅東種柳益馬, 宅西種棗益牛, 中門有槐, 富貴三世, 宅後有榆, 百鬼不敢近.”

33) 黃玹, 『梅泉集』, 「茅溪精舍上梁文」. “苟宅經之新占, 克建燕寢, 惟意匠之素廣, 實厭鳩巢.”

34) 『作庭記』. “經云, 家ヨリ東ニ流水有ルヲ、青龍トス、…… 西ニ大道有ルヲ白虎トス、…… 南ニ前池有ルヲ、朱雀トス、…… 北ニ岳有ルヲ、玄武トス、…… 如レ此シテ、四神

『작정기』의 저작 시기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11세기 경)이며 저자는 다치바나노 도스쓰나(橋俊綱, 1028-1094)로 알려져 있는데,<sup>35)</sup> 『작정기』에는 양택 사신사 뿐만 아니라, 『택경』과 『사마두타지맥결』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인 귀문(鬼門)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양택풍수서가 일본에 전래되어 『작정기』 등에 응용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따라서 『작정기』의 ‘경에 이르기를[經云]’이라는 표현에서 경은 『돈황택경』이나 『사마두타지맥결』 등의 중국의 양택서임을 유추할 수 있다.<sup>37)</sup>

그리고 아베노 세이메이(安倍晴明)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보궤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동쪽에 흐르는 물[流水]을 청룡이라 하며 남쪽에 연못[澤畔]을 주작이라고 하며 서쪽에 큰 도로[大道]를 백호라고 하며 북쪽에 높은 산[高山]을 현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신이 구비되어 있는 즉, 사신상응의 땅이라 하며 더욱 크게 길한 것이다. 만약 하나라도 이지러지면 재앙이 있다.”<sup>38)</sup>

즉, 북쪽 현무를 산[山], 동쪽 청룡을 강[川], 서쪽 백호를 도로[道], 남쪽 주작을 연못[澤]으로 보는 산천도택이 서로 응한다고 하여 음택 풍수의 사신사와는 달리 사신상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궤내전』은 양택 사신사 뿐만 아니라 각종의 방위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점이 『택경』 및 『사마두타지맥결』 등의 내용과 유사하여 역시 중국 양택서의

相應ノ地トナシテ居ヌレバ、官位福祿ソヰナハリテ、無病長壽也。”

35) 飛田範夫는 橋俊綱의 『작정기』 이전에 원본이 있다고 보았다. 즉, 谷村本, 山水抄, 或書와 비교할 때 한문이 포함된 한자, 가타카나가 섞인 문장일 가능성이 높고 가타카나 표기는 院政期에 완성된 것이나 鎌倉시대에 와서 한자와 섞은 가타카나 표기가 다수 출현한 것으로 보면 『작정기』 원본의 성립은 院政期(1086-1191)로 보인다고 하였다. 飛田範夫, 『『作庭記』原本の推定』, 『長岡造形大学研究紀要』 7(2010), 40쪽.

36) 이에 대해서는 천인호, 「일본 고도 평안경(교토)의 풍수 사신: 평가와 문제제기」, 『동아시아문화연구』 64(2016), 213-244쪽 참조.

37) 이에 대해서는 水野杏紀(2007), 앞의 논문, 165-166쪽; 田村剛, 『作庭記』(相模書房, 1964), 230쪽 참조.

38) 『篋篋內傳』, 「四神相應地」. “東有流水曰青龍, 南有澤畔曰朱雀, 西有大道曰白虎, 北有高山曰玄武, 右此事物具足, 則謂四神相應地, 尤大吉也, 若一闕則災禍.” 『보궤내전』의 정식명칭은 『三國相伝陰陽館篋篋內伝金烏玉兔集』이다. 이 책은 安倍晴明(921-1005)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鈴木一馨은 이 책은 應永21년(1414년) 賀茂在方(?-1444)의 『掌中曆』에 나오기 때문에 室町時代(14세기)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으로 볼 때 佛家神仙說이 상당히 농후하여 鎌倉時代(1185-1333)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鈴木一馨, 『『篋篋內傳』の陰陽道書としての位置付けに關する検討』, 『文化』 23(2005), 17쪽.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태자전옥림초』의 기사는 『작정기』, 『보쾌내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음양서에 전하기를 왼쪽을 청룡이라고 하는데 동쪽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물(流水)이다. 앞을 주작이라고 하는데 남쪽 연못(池溝)이 있는 것이다. 오른쪽을 백호라고 하는데 서쪽에 큰 도로(大道)가 있는 것이다. 뒤를 현무라 하는데 뒤에 산악(山岳)이 있는 것이다.”<sup>39)</sup>

일본에서는 『작정기』, 『보쾌내전』 이후 많은 가상서가 출판되었다.<sup>40)</sup> 특히 에도시대 이후의 일본의 가상서들은 중국의 『영조택경』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양택 사신사와 관련한 내용들의 일부는 바뀌어 저술되어 있는데 현무를 산, 청룡을 물, 백호를 도로, 주작을 연못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동일하다. 『가상방위도설』의 기사는 『보쾌내전』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동쪽 흐르는 물(流水)을 청룡이라 하고, 남쪽 연못(澤畔)이 있으면 주작이라 하고, 서쪽에 도로(大道)가 있으면 백호라고 하고, 북쪽에 높은 산(高山)이 있으면 현무라고 한다. 이 4가지를 갖춘 즉 사신사의 땅이라 하며 크게 좋은 것이다. 만약 하나라도 이지러지면 화를 불러온다.”<sup>41)</sup>

그리고 『가상천백년안』에는 “청룡은 동쪽의 흐르는 물(流水)이고, 백호는 서쪽의 도로(往來)이며, 주작은 남쪽은 연못(汗池)이고, 현무는 북쪽은 산봉(山峯)이다.”<sup>42)</sup>고 하였는데 주작은 중국의 『돈황택경』, 『유설』 등의 양택서와 같이 오지(汗池)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상비전집』에서는 『영

39) 『太子傳玉林抄』. “陰陽書曰, 左青龍者, 從東水南流也, 前朱雀者, 南池溝在之也, 右白虎者, 西大道有也, 後玄武者, 後山岳在之, 凡東下南下西北高大吉也, 此云二四神具足地也.” 『태자전옥림초』는 『聖德太子傳曆』의 주석서로서 法隆寺 승 海訓이 文安5년(1448년) 완성하였다.

40) 일본의 가상서에 대한 상세한 목록은 宮内貴久, 「家相觀の受容過程に関する民俗学的研究覚書」, 『比較民俗研究』 3(1991); 丸山宏, 「江戸後期の家相書と庭園りの吉凶」, 『研究發表論文』 16(5)(1998) 참조.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일본측 가상서는 위의 논문에 소개된 것과 아울러 일본국립국회도서관(<http://dl.ndl.go.jp>)에 소장하고 있는 가상서 중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41) 賀茂保久, 『家相方位圖說』. “東流水曰青龍, 南有澤畔曰朱雀, 西有大道曰白虎, 北有高山曰玄武, 右四物具足者, 則謂四神相應地, 尤大吉也, 若一闕災禍自其方至有口授.”

42) 平沢白翁, 『家相千百年眼』, 卷之上. “青龍東よ流水あり, 白虎西よ往來あり, 朱雀南よ汗池有り, 玄武よ山峰有り.”

조택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사신사를 주역의 괘와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사신사의 방위가 주역의 괘에서 생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영조택경』에 말하기를 집의 왼쪽에 흐르는 물[流水]을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의 긴 도로[長道]를 백호라 하고 앞의 연못[汚池]을 주작이라 하고 뒤의 구릉[丘陵]을 현무라 하는데 가장 귀한 땅이다. 소위 유수[流水], 장도[長道], 오지[汚池], 구릉[丘陵]의 네 형태는 진태감리[震兌坎離]의 괘상에서 생겨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네 이름이 되었다.”<sup>43)</sup>

즉, 후천팔괘의 방위에서 진(震)은 서쪽, 태(兌)는 동쪽, 감(坎)은 북쪽, 리(離)는 남쪽을 의미하는데 사신사의 절대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일본 가상서에는 대체로 현무를 산, 청룡을 흐르는 물로 보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백호나 주작의 경우 그 내용과 의미를 달리하는 것들도 보인다. 먼저 『택방명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형에서 사신상용이라는 것이 있다. …… 소위 동쪽은 청룡으로 물이 흐르는 것[流水]을 좋아한다. 서쪽은 백호로 도로[道路]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남쪽은 주작으로 낮은 땅[地低]을 좋아하는데 연못[汚池]이 있는 것도 꺼리지 않으며, 북쪽은 현무로 높은 땅[地高]을 좋아하는데 구릉[丘陵] 등이 있는 것이 좋다. 이 땅에 살면 부귀가 오래간다.”<sup>44)</sup>

즉, 『택방명감』에서는 동쪽의 물, 서쪽의 도로, 북쪽의 현무는 ‘좋다(好)고 표현하였으나, 남쪽은 낮은 땅을 좋아하며, 연못은 ‘꺼리지(好)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청룡과 백호 및 현무는 사신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작은 낮은 땅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방위방운』에는 주작을 낮은 땅, 연못, 밭과 들판까지 폭넓게 상징하고 있다.

43) 松浦琴鶴, 『家相秘傳集』, 「地理宅相の大意」. “營造宅經曰, 人宅ふ流水ある之を青龍と謂ふ, 右ふ長道ある之を白虎と謂ふ, 前ふ汚池ある之を朱雀と謂ふ, 後ふ丘陵ある之を玄武と謂ふ, 乃最貴の地とまと所謂流水長道汚池丘陵の四形ハ震兌坎離の卦象より生, 青龍白虎朱雀玄武の四名.”

44) 平澤勝, 『宅方明鑒』, 「四神之辯」. “地形に四神相應といふことあり …… 所謂、東ハ青龍とて水の流るを好とす, 西ハ白虎とて道路あるを好む, 南ハ朱雀とて地低きを好ミ、汗池あるも妨げず, 北ハ玄武とて地高きを好む, 丘陵などあるも上相とす, これらの地に住すれば、富貴延命を主る.”

이상의 양택고전서와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가상서에 나타난 사신사를 요약한 것이 표2이다.

표2-양택서의 사신사

구분	서명	저자, 시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국	돈황택경(敦煌宅經)	미상, 당(唐)추정	流水	大道	汙池	丘陵
	사마두타지맥결(司馬頭陀地脉訣)	劉晏, 당(唐)추정	流水	大道	洿池	大丘陵
	유설(類說)	증조, 송(宋)	流水	長道	汙池	丘陵
	영조택경(營造宅經)	元	流水	長道	汙池	丘陵
	양택십서(陽宅十書)	明	流水	長道	汙池	丘陵
한국	산림경제(山林經濟)	홍만선(1643-1715)	流水	長途	汚池	丘陵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서유구(1764-1845)	流水	大道	池	丘陵
일본	보래내전(簾蓋內傳)	安倍晴明(921-1005)	流水	大道	澤畔	高山
	작정기(作庭記)	橘俊綱(1028-1094)	流水	大道	池	岳
	태자전옥림초(太子傳玉林抄)	海訓(1448)	流水	大道	池溝	山岳
	가상비록(家相秘錄)	疋田慶明(1782)	流水	長道	沃池	丘陵
	가상방위도설(家相方位圖說)	賀茂保久(1820)	流水	大道	澤畔	高山
	가상비요감(家相秘要鑑)	純東齋(1825)	流水	大道	澤畔	山奉
	가상방위방운(家相方位方運)	田中一德齋(1835)	流水	樹林	低地, 汚池, 田野	山岳, 丘陵
	택방명감(宅方明鑑)	平澤白翁(1844)	流水	道路	地底	地高
	가상비집전(家相秘傳集)	松浦琴鶴(1840)	流水	長道	汚池	丘陵
	가상천백년안(家相千百年眼)	平澤勝(1845)	流水	往來	汙池	山峰
가상편람(家相便覽)	穴戶頼母(1881)	流水	林	田圃	山	
택상발휘(宅相發揮)	伊藤昌厚(1893)	流水	大道	汚池	丘陵	

주: 일본 가상서의 저자와 시기는 宮内貴久, 「家相觀の受容過程に関する民俗学的研究覚書」, 『比較民俗研究』 3(1991) 및 丸山宏, 「江戸後期の家相書と庭造りの吉凶」, 『研究発表論文』 16(5)(日本庭園学会, 1997), 일본국립국회도서관(<http://dl.ndl.go.jp>)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 IV. 음·양택 풍수 사신사의 재해석

음택풍수의 사신사의 목적은 혈을 중심으로 한 장풍(藏風)에 있다. 『영성정의』에는 “혈이란 반드시 장풍이 되고 생기가 모여야 한다.”<sup>45)</sup>고

45) 何溥, 『靈城精義』. “而穴必藏風聚氣矣.”

하였으며, 『의룡경』에서는 “위로는 진혈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래로는 장풍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sup>46)</sup>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신사는 바람을 갈무리함으로써 혈의 생기를 보존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양택의 사신사는 산천도택을 의미하여 여러 양택서를 종합한 결과 청룡은 흐르는 물[流水]로 일치하나, 현무는 산 또는 구룡[高山, 大丘陵, 丘陵, 山峰, 山岳, 高岡] 등으로, 백호는 도로[道路, 大道, 長道, 長途, 往來, 樹林, 林] 등으로 주작은 연못, 논밭, 바다[池, 汙池, 洿池, 澤畔, 池溝, 沃池, 田野, 田畑] 등으로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택 사신사와 양택 사신사의 차이점과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 사신사는 풍수고전에서는 공통적으로 현무수두, 주작상무, 백호준거(또는 순부), 청룡완연이라는 그 모양과 형태로서 길흉의 판단 기준을 삼는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는 사신의 거처 또는 행위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보궤내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동쪽은 비늘 달린 고기가 있는데 이를 청룡이라 하며 물 깊은 곳에 거하는 우두머리인 까닭이다. 남쪽에 깃털 달린 새가 있는데 이를 봉황이라 하며 전변(田邊)에서 거하는 우두머리인 까닭인데 오동은 봉황의 거처이다. 서쪽에는 달리는 짐승이 있는데 이를 백호라고 하며 길을 달리는 우두머리인 까닭이다. 북쪽에는 껍질 있는 동물이 있는데 이를 거북이라 하며 산골에 거처하는 우두머리인 까닭이다. 가운데는 벌거벗은 것 중 인간이 우두머리이다. 사면이 이와 같이 편안하고 사신이 구비되어 있으면 부귀가 저절로 이루어지며 자손이 번창한다.”<sup>47)</sup>

이와 관련하여 『대대례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깃털 달린 동물은 360종인데 봉황이 그들의 우두머리이며, 털 달린 동물은 360종인데 기린(麒麟)이 그들의 우두머리이며, 껍질 있는 동물은 360종인데 거북이 그들의 우두머리이며 비늘 있는 동물은 360종인데 교룡(蛟龍)이 그들의 우두머리이며, 벌거벗은 동물은 360종인데 성인이 그들의 우두머리이다.”<sup>48)</sup>

46) 『疑龍經』, 「中篇」. “無疑上坡是真穴, 看來下坡亦藏風.”

47) 『簞籩內傳』. “東有鱗漁, 以青龍爲上首常居水底, 故云爾, 南有禽翎, 以鳳凰爲上首常居田邊, 故云爾, 桐鳳凰栖巢也, 西有走獸以白虎, 爲上首常走均途, 故云爾, 北甲虫以, 鰲龜爲上首常住山壑, 故云爾, 中央有裸虫以, 人間爲上首居人中, 四面安彼斯, 四物相具足, 則富貴自在, 子孫繁昌也.”

또한 『춘추좌전정의』에서는 “용은 비늘 달린 것의 우두머리이고, 봉황은 나는 새의 우두머리이며, 기린은 달리는 짐승의 우두머리이며, 거북은 껍질 있는 동물의 우두머리인데, 기린과 백호는 둘 다 걸어 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거북, 봉황, 용, 백호의) 사령(四靈)이 되었다.”<sup>49)</sup>고 하였다.

따라서 기린이 백호로, 봉황이 주작으로 대체된 것을 고려한다면<sup>50)</sup> 『보궤내전』의 사수(四獸)에 대한 설명은 봉황은 깃털 달린 새로 거처로서의 전변(田邊), 거북은 껍질 있는 동물로 거처로서의 산, 용은 비늘 있는 동물로 거처로서 물, 호랑이는 달리는 짐승 중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달리는 행위를 위한 길을 상징하여 사방에 배치하고, 인간은 벌거벗은 동물 중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한 것으로서 『보궤내전』은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일본의 가상서인 『가상방위방운』에서는 사신사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설명을 하고 있다. 동쪽 청룡은 감추어있다 오르는[潛躍] 물이 있어야 하며, 서쪽 백호는 달리는[走遊] 도로와 우거진 숲[樹林]이 있어야 하며, 남쪽 주작은 낮은 땅[地底], 연못[汚池]과 밭, 평야[田野]가 있어야 빙빙 돌면서 춤출 수[翻] 있는 것이며, 북쪽 현무는 높은 땅[地高] 산악이나 구렁이 있어 감추어 깃들 수[潛栖] 있어야 한다.<sup>51)</sup>고 하였다.

먼저 청룡이 물과 관련되는 것은 『관자』에 “용은 물에서 살며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능력을 가진 신이다.”<sup>52)</sup>고 하였으며, 『설문해자』, 『태평어람』, 『예문류취』 등에서는 “용은 비늘 있는 동물의 우두머리이며 ……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추분에는 깊은 물에

48) 『大戴禮記』, 「易本命」. “有羽之蟲三百六十, 而鳳皇為之長, 有毛之蟲三百六十, 而麒麟為之長, 有甲之蟲三百六十, 而神龜為之長, 有鱗之蟲三百六十, 而蛟龍為之長, 勞之蟲三百六十, 而聖人為之長.”

49) 『春秋左傳正義』 卷1. “龍是魚鮪之長, 鳳是飛鳥之長, 麟是走獸之長, 龜是甲蟲之長, 虎麟皆是走獸 故略云四靈.”

50) 남쪽을 상징하는 것으로 『禮記』, 「禮運編」에는 鳳, 『大戴禮記』, 「易本命」에는 鳳凰으로 되어 있다.

51) 田中一徳齋, 『家相方位方運』, 「地之卷」, 四神相應之說. “東は青龍も云て流水あるを好もす, 是青龍潛躍之水なり, 西は白虎も云て道路樹林あるを好もす, 是白虎走遊之林なり, 南は朱雀も云て地底く汚池田野あるを好もす, 是朱雀翔舞之地なり, 北は玄武も地高く山岳丘陵ある好もす, 是れ玄武潛栖之山あり, 右の知き備への地を四神相應も云ふ, 如斯處に家を構ふれば富貴にて, 子孫續長壽を司るなり, 亦人力を以て右の備に象り, 吉慶を招くもあります.”

52) 『管子』, 「水地」. “龍生於水, 被五色而游故神.”

들어간다.”<sup>53)</sup>라거나 『태평어람』, 『춘추좌씨전』에 “용은 물에 사는 짐승이다”<sup>54)</sup>라고 하여 물은 용의 서식처이다.

용은 물에서 살고 생겨나며, 물이 있어야 신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용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연조건으로 인식된 것이다.<sup>55)</sup> 따라서 동쪽 유수(流水)가 청룡이 되는 이유는 용은 비늘 있는 동물의 우두머리로서 물의 동물이기 때문에 잠길 수 있는 거처로서 물, 즉, 용의 서식처로서의 물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남쪽이 주작이 되는 이유는 주작은 깃털 달린 동물의 우두머리로서 밭, 연못, 평야 등이 있어야 상무(翔舞)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작은 봉황이 대체된 것으로서 봉황은 오동나무에 깃들며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데 이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논, 밭, 평야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쪽 백호가 도로나 숲이 되는 것은 백호는 달리는 동물의 우두머리로서 백호가 달리는 대상으로서의 도로가, 거처로서는 숲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쪽 현무가 산이 되는 것은 현무는 껍질 있는 동물의 우두머리로서 산골에 살기 때문에 몸을 감출 수 있는 거처로서 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음택사신사가 혈을 중심으로 한 폐쇄된 공간이라면 양택 사신사는 북쪽에는 산이 있지만, 동쪽에는 강, 서쪽에는 도로, 남쪽에는 연못이 있음으로써 개방된 공간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음택 사신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장풍의 조건보다는 양택이나 양기에 있어서의 생활공간 확보라는 조건이 더욱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택에 있어 북쪽의 산은 겨울철 북서계절풍을 막는 방풍의 효과가 있으며, 동쪽의 강은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서쪽의 도로는 외부와의 교통로의 확보, 남쪽의 연못은 농업용수를 제공받거나, 평야는 식량이나 생활자료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서 유용하다.

특히 양기에 있어서도 양택 사신사는 음택 사신사에 비해 더욱 유용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미즈노 야키(水野杏紀)는 양택 사신사는 동쪽에

53) 『說文解字』 卷11; 『太平御覽』 卷929, 「鱗介部」; 『藝文類聚』, 卷第916. “龍鱗蟲之長, …… 春分而登天, 秋分而入淵.”

54) 『太平御覽』 卷929, 「鱗介部」; 『春秋左氏傳』 「昭公」. “龍水物也.”

55) 홍윤희, 「중국 용 신화의 에콜로지: 물의 신으로서의 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86(2014), 431쪽.

하천, 서쪽에 도로를 배치하는 것인데, 하천이나 도로는 문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 되며, 도시나 집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당나라 수도인 장안(長安)의 경우 다양한 문물, 사람, 문화가 교류되었던 국제도시였는데 이는 동쪽은 위하(渭河)와 황하(黃河)를 통한 수상운송, 서쪽은 실크로드를 통한 육상운송의 이점이 있었기에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56)</sup> 즉, 양기에 있어 청룡의 강은 수상교통, 백호의 도로는 육상교통, 남쪽의 평야, 밭 등은 곡식 재배와 연못은 필요한 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활공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시 입지로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일본의 가상서 중 주작을 논밭(田圃), 낮은 땅(低地), 평야(田野) 등으로 상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실생활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주작이 연못의 개념에서 논과 밭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 것은 식량 생산을 위한 장소 더 나아가 상업 활동을 위한 용지로서의 주작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고대 도시인 헤이안쿄(平安京: 현재 교토)의 사신사는 현무는 후나오카야마(船岡山), 청룡은 카모가와(鴨川), 백호는 산닌도우(山陰道), 주작은 오구라이케(巨椋池)로 알려져 있다.<sup>57)</sup> 오구라이케는 주위 16km<sup>2</sup>, 면적 약 800ha에 달하는 넓은 호수로서 각종의 어자원 등이 풍부하였으며 헤이안시대에는 수상 교통의 중계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 하천이 모여들고 나가는 곳으로 주변 주민들이 매년 수해를 입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당시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의 치수가 있었으며 에도시대에도 여러 공사와 시설 보수가 이루어졌다. 메이지시대에는 홍수의 피해와 반복되는 수해와 수질의 악화가 진행되어 우량한 농지로 전환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33년 간척사업이 착공되어 1941년에 완성되어 연못이 간척 논으로 바뀌었다.<sup>58)</sup> 그리고 오구라이케의 간척과 경지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물 증산,

56) 水野杏紀(2008), 앞의 논문, 173쪽.

57) 이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상당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일본의 풍수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도 대부분 등장하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京都府, 『千年の都と鴨川』(鴨川流域懇談會, 2006), 2쪽; 神崎茂夫, 『やまびこは語る』(文芸社, 2002), 310쪽; 木尾郎海, 『風水思想論考』(山喜房佛書林, 1994), 60-61쪽; 西川幸治・高橋徹・穂積和夫, 『京都千二百年〈上〉平安京から町衆の都市へ』(草思社, 1997) 12쪽에 잘 나타나 있다.

58) 仙道昭平・菅野壯平・越智士郎・松野裕・八丁信正, 『巨椋池における土地利用の変化と物質循環』, 『近畿大学学術情報リポソトリ』(近畿大学資源再生研究所, 2006), 20-21

경영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해방지와 홍수조절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sup>59)</sup>

오구라이케의 간척 이유는 홍수 등의 피해와 아울러 수질의 악화로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식량 생산의 차원에서 간척한 것이다. 즉, 연못이 평야가 된 것으로서 연못보다는 평야의 식량 생산이 실생활에 더욱 유용하다는 면에서 주작을 평야로도 상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영비감』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무릇 이 에도성(현재 도쿄)은 천하의 성의 격에 맞고 이 땅은 사신사의 상과 맞다. 먼저 앞에는 땅이 열려 있어 장사하기 편리하고 하정(下町: 평지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주작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 드는 도키와바시(常盤橋)이다.”<sup>60)</sup>

여기서 도키와바시는 에도시대 현재의 니혼바시가와(日本橋川)에 설치한 다리인데 고쿄(皇居)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에도시대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도쿄의 중요한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다. 즉, 주작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상업용지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주작을 바다(海)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록원년(嘉祿元年: 1225) 『오처경』에는 “어소(御所)의 땅을 정하기 위해 거듭하여 짐을 쳐서(卜筮) 결정하기로 하고 …… 서쪽에는 큰 도로(大道)가 남쪽으로 가고, 동쪽에는 강(河)이 있고, 북쪽에는 쓰루오카(鶴岡)가 있으며, 남쪽은 바닷물(海水)이 가득하여 연못에 견줄 수 있다.”<sup>61)</sup>고 하여 바다를 연못과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에도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무라 쿠니히로(志村有弘)는 에도의 사신시는 “북쪽은 고지마치다 이지(麴町大地: 도쿄 千代田区 지역)의 우에노야마(上野山), 동쪽은 히라가와(平川), 서쪽은 고슈가이도우(甲州街道), 남쪽은 에도반(江戸藩)을 감싸는 곳이라고 하여 에도는 땅 자체가 사신상응에 대응한다.”<sup>62)</sup>고 하였다.

쪽을 참고하여 정리.

59) 金子明雄・小田一彦, 「巨椋池干拓地を考える」, 『農業土木学会誌』, 66(6)(1998), 606-607쪽.

60) 菊池弥門, 『柳営秘鑑』(水野杏紀, 앞의 논문(2008), 181쪽에서 재인용). 인용문 내 ( )는 필자 설명임.

61) 『吾妻鏡』, 吉川本, 嘉祿元年(1225) 10월 20일 丁未條. “御所地の事、重ねてその沙汰有り、卜筮に決すべきの由と …… 西は大道南行し、東に河有り、北に鶴岡有り、南に海水を湛え、池沼に准ずべしと。”

62) 志村有弘編, 『戦国残照お江とその時代』(勉誠出版, 2011), 140쪽, “北に麴町大地と上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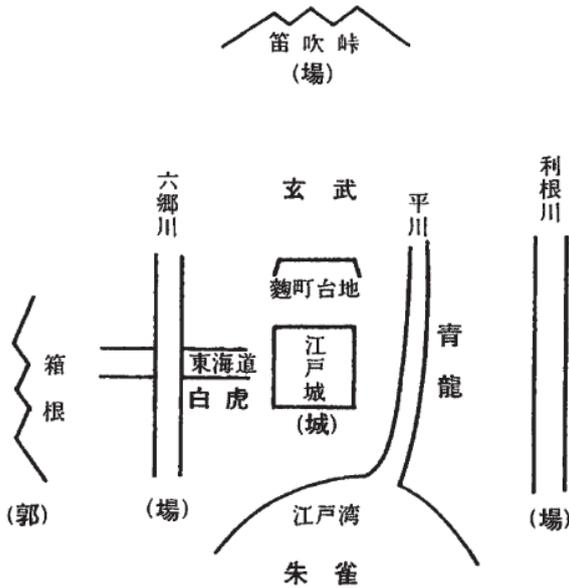


그림2-에도의 사신사

출처: 内藤昌, 『江戸と江戸城』, 鹿島出版會(1966)(松井圭介, 「寺社分布と機能からみた江戸の宗教空間」, 『地学雑誌』 123(4)(2014), 454쪽에서 재인용).

또한 나이토 아키라(内藤昌)는 에도의 사신사를 그림2와 같이 청룡은 히라카와(平川), 주작은 에도만(江戸灣), 백호는 도우카이도우(東海道), 현무는 고지마치다이(魏町大地)로 비정하였다.<sup>63)</sup> 이는 결국 ‘호수=물=바다’라고 보아 주작을 에도만이라는 바다를 상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 면에 바다에 접한 에도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음택 사신사와 양택 사신사의 차이점은 음택 사신사에서 주작은 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후현무를 중심으로 청룡과 백호에서 발원한 물이 혈 앞에 모여(合水) 굴곡하면서 빠져나가는 출구[破口]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의 주작은 연못 자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더구나 오염된 물(汙池)로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4)</sup>

山、東に平川、西に甲州街道、南に江戸藩を抱くものであった、とあり、江戸という土地自体が四神相応に対応しているようだ。”

63) 内藤昌, 『江戸と江戸城』(鹿島出版會, 1966)(松井圭介, 「寺社分布と機能からみた江戸の宗教空間」, 『地学雑誌』 123(4)(2014), 454쪽에서 재인용).

『장서』에서는 “연못은 물의 세(勢)가 쇠약한 모습으로 그 흐름은 간헐다가 다시 흘러나간다.”<sup>65)</sup>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은 택(澤)은 저수지를 말하며 물이 모여드는 곳으로 이미 고여서 조용히 머물러 흐름이 멈추게 되면 수세는 이미 사라진 것이므로 쇠(衰)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못의 물은 기가 멈추어 수세가 사라진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택 풍수서 대부분은 흐르는 물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그 물 흐름의 형태와 모양으로 길흉을 판단하고 있으나 양택 사신사에서는 연못 자체를 주작으로 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물과 관련하여 음택 풍수에서는 명당수의 기본조건을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물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동림조담』에서는 “명당에 나쁜 냄새가 나고 더럽거나 불결한 물이 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悖逆) 흉한 재앙(凶殘)의 상징인 것이다.”<sup>66)</sup>고 하여 명당수의 기본 조건은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양택서의 대부분은 주작을 오지(汗池 또는 汚池)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전면에 있는 연못은 입지 내의 물이 모이는 곳으로, 도시내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대에 청계천 명당수 논쟁에서 어효침의 상소와 관련한 기사에서 “도읍의 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사는지라, 번성하게 살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쌓이게 되므로, 반드시 소통할 개천과 넓은 시내가 그 사이에 총횡으로 트이어 더러운 것을 흘러 내어야 도읍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 물은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능지(墓地)의 술수를 미루어서 도읍의 물까지 일체 산간(山間)의 깨끗함과 같게 하고자 한다면 사세가 능히 실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치로 말할지라도 죽고 삶이 길이 다르고, 귀신과 사람이 몸이 다르니, 묘지의 일을 어찌 국도에 유추할 수 있겠나이까.”<sup>67)</sup> 라고 하였다.

이는 『동림조담』의 내용은 음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국도와 같은

64) 물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생활용수처로서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오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현대적으로 볼 때, 생태계의 부하능력 이하의 오염, 생태계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적인 정화가 이루어지는 오염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65) 『葬書』, 「外篇」. “澤其相衰, 流于囚射.”

66) 『洞林照膽』, 「凶氣篇」. “明堂有臭穢不潔之水悖逆凶殘之象者.”

67) 『세종실록』, 세종 26년(1444년), 12월 21일, 병인.

양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명당수는 도시 하천의 역할을 하여 생활하수 등을 투하한 까닭에 맑게 유지할 수 없으며, 맑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양택 사신사에서 주작의 연못은 실생활에 물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 V. 맺음말

사신사란 동양 고대의 천문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풍수의 사신사란 혈을 중심으로 주위를 호위하는 것으로서 후현무, 전주작, 좌청룡, 우백호를 의미한다. 음택풍수의 사신사란 주로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혈을 호위하고 생기를 모으는데 있으며 중국의 풍수 고전인 『호수경』, 『장서』 또는 『금낭경』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러나 양택풍수의 사신사는 현무를 산, 주작을 연못, 청룡을 강, 백호를 도로로 보는 산천도택을 의미하며 중국의 양택 풍수 고전인 『택경』, 『사미두타지맥결』 등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즉 중국에서는 음택과 양택의 사신사가 같이 존재하였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양택 사신사는 이후 송대 『유설』, 원대 『영조택경』, 명대 『양택십서』 등에 그 내용이 전제되었고, 일본의 경우 『작정기』, 『보궤내전』에 그대로 인용되어 에도시대 이후 일본 가상서는 대부분 산천도택 사신사로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바에 의하면 음택 사신사와 양택 사신사의 차이점과 양택 사신사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 사신사는 사신사의 모양과 형태로 길흉을 판단하지만, 양택 사신사는 사신의 거처 또는 행위와 관련 있으며 존재만으로도 사신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음택 사신사는 현무수두, 주작상무, 백호준거(또는 순부), 청룡완연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건에 상응할 경우는 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흉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는 사신의 거처와 행위와 관련된다. 즉 현무는 그 몸을 감출 수 있는 거처로서의 산, 청룡에서 용은 물의 짐승이기 때문에 용의 거처와 아울러 승천과

하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물, 백호는 거처로서의 숲과 달릴 수 있는 도로, 주작은 봉황이 대체된 것으로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평야, 밭, 연못 등을 상징한 것으로 새가 밭에 모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나 모양과는 큰 관련이 없이 존재만으로도 산천도택의 사신사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양택 사신사는 음택 사신사에 비하여 개방적이며 생활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음택 사신사는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에서 뒤의 산은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기능과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생활용수의 공급, 서쪽의 도로는 교통로의 확보와 남쪽의 연못이나 평야는 식량생산과 농업용수의 공급으로 실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양기에서의 사신사는 동쪽의 물은 수상교통, 서쪽의 도로는 육상교통로의 확보가 용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남쪽의 주작은 초기에 연못을 상징한 것이 이후에 밭, 평야로 전화한 것은 전면의 개방지에 곡물 생산을 위한 장소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신사 중 주작에 해당하는 연못을 오지(汗池 또는 滄池)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생활하수의 배출처라는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택 사신사에서 주작을 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물의 흐름이 굴곡되어야 한다는 점, 파구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 물 흐름의 모양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물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택 풍수의 주작인 연못은 생활하수의 배출처라는 의미에서 연못을 상징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생활 하수의 존재를 인정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풍수에서는 음택 풍수이론이 양택이나 양기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양택은 물론 이보다 규모가 큰 양기에 음택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양택이나 양기에는 양택 풍수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현대 도시에 풍수이론을 적용할 때 양택 사신사의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사신사에 한정하였지만 『택경』에 나타난 각종의 방위론과 일본 가상서에 보이는 다양한 방위론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향후 풍수 연구에서 음택과 양택을 분리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음택 사신사의 경우도 ‘장풍득수(藏風得水)’로 표현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택 사신사와 양택 사신사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풍수이론의 통합적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管子』, 『錦囊經』, 『論衡』, 『洞林照膽』, 『篋篋內傳』, 『司馬頭陀地脉訣』, 『雪心賦辯訛正解』, 『陽宅十書』, 『營造宅經』, 『吾妻鏡』, 『疑龍經』, 『葬書』, 『淮南子』, 『狐首經』, 『太子傳玉林抄』, 『太平御覽』, 『作庭記』, 『朝鮮王朝實錄』, 『春秋左氏傳』, 『春秋左傳正義』.

菊池弥門, 『柳宮秘鑑』.

歐陽詢 撰, 『藝文類聚』.

陸佃, 『埤雅』.

梅鼎祚, 『釋文紀』.

程道生 撰, 『遁甲演義』.

徐有桀, 『林園經濟志』.

徐陵, 『徐孝穆集箋注』.

松浦琴鶴, 『家相秘傳集』.

何溥, 『靈城精義』.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田中一德齋, 『家相方位方運』.

張溥, 『漢魏六朝百三家集』.

曾慥編, 『類說』.

載德選, 『大戴禮記』.

彭大翼, 『山堂肆考』.

太田恵助, 『家相新編』.

賀茂保久, 『家相方位圖說』.

洪萬選, 『山林經濟』.

黃宗義, 『明文海』.

黃玆, 『梅泉集』.

宍戸頼母, 『家相便覽』.

平沢白翁, 『家相千百年眼』.

平澤勝, 『宅方明鑒』.

### 2. 단행본

『林園經濟志』,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京都府, 『千年の都と鴨川』. 鴨川流域懇談会, 2006.

内藤昌, 『江戸と江戸城』. 鹿島出版会, 1966(松井圭介, 「寺社分布と機能からみた江戸の宗教空間」. 『地学雑誌』 123(4), 2014).

木尾郎海, 『風水思想論考』. 山喜房佛書林, 1994.

西川幸治・高橋徹・穂積和夫, 『京都千二百年〈上〉平安京から町衆の都市へ』. 草思社, 1997.

神崎茂夫, 『やまびこは語る』. 文芸社, 2002.

志村有弘編, 『戦国残照お江とその時代』. 勉誠出版, 2011.

田村剛, 『作庭記』. 相模書房, 1964.

足利健亮, 『景観から歴史を読む地図を解く楽しみ』. 日本放送出版協会, 1998.

Ellen Van Goethem, *Shijin Sōō 四神相応 in East Asia: An Urban or Private Site Selection Model?*. 九州大学教育研究プログラム・研究拠点形成プロジェクト, 2014.

### 3. 논문

김승윤, 「사쿠테이키(作庭記)의 작정원리 연구: 풍수론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1(6), 2013, 1-19쪽.

김일권, 「사신도 형식의 성립과정과 한대의 천문성수도 고찰」. 『고구려연구』 11, 2001, 109-156쪽.

이성구, 「사신의 형성과 현무의 기원」. 『중국고중세사연구』 19, 2008, 1-59쪽.

천인호, 「국도(國都) 풍수의 한일비교 연구」. 『국학연구』 25, 2014, 535-571쪽.

천인호, 「일본 고도 평안경(교토)의 풍수 사신: 평가와 문제제기」. 『동아시아문화연구』 64, 2016, 213-244쪽.

홍윤희, 「중국 용 신화의 에콜로지: 물의 신으로서의 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86, 중국어문학연구회, 2014, 429-446쪽.

金子明雄・小田一彦, 「巨椋池干拓地を考える」. 『農業土木学会誌』, 66(6), 1998, 603-608쪽.

宮内貴久, 「家相観の受容過程に関する民俗学的研究覚書」. 『比較民俗研究』 3, 1991, 214-229쪽.

鈴木一馨, 「日本古代・中世期の風水術における四神相応について」. 『宗教研究』 359, 2009, 1209-1210쪽.

多々良美春・元貞喜・白井彦衛, 「伝統的庭園の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 『千葉大園学報』 46, 1992, 264-276쪽.

飛田範夫, 「『作庭記』原本の推定」. 『長岡造形大学研究紀要』 7, 2010, 34-57쪽.

寺本建三, 「敦煌文書『司馬頭陀地脉訣』和譯(上)」. 『史迹と美術』 83(2), 2013, 72-

83쪽.

西垣安比吉, 「風水四相からみた『作庭記』-覺書き」.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1992, 1309-1310쪽.

仙道昭平・菅野壮平・越智士郎・松野裕・八丁信正, 「巨椋池における土地利用の変化と物質循環」. 『近畿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2006, 19-27쪽.

松井幸一, 「城下町における都市計画と基軸の設定 -飯田を事例として-」.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45, 2012, 325-345쪽.

水野杏紀, 「四神相応と植物: 『营造宅経』と『作庭記』を中心として」. 『人間社会学研究集録』 3, 2007, 161-200쪽.

足利健亮, 「古代都城・平安京の都市計画と四神」. 『地理學研究』 10, 1985, 425-440쪽.

丸山宏, 「江戸後期の家相書と庭造りの吉凶」. 『研究発表論文』 16(5), 1997, 379-384쪽.

#### 4. 기타

일본국립국회도서관(<http://dl.ndl.go.jp>).

Ellen Van Goethem, "Pleasing the Four Gods: Shijin sōō(四神相応), Site Selection and Site Adaptation." Cultural Crossroads, Proceedings of the 26th International SAHANZ Conference, CD-rom, 2009.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양택풍수이론은 음택풍수와는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대표적으로 음택풍수의 사신사와는 다른 양택풍수 사신사의 기원과 본질, 형태와 특징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음택 사신사는 혈을 중심으로 4개의 산을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호위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의 음택서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는 현무를 산, 주작을 연못, 청룡을 강, 백호를 도로로 하는 산천도택(山川道澤) 사신사로 주로 중국과 일본의 양택풍수서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후 양택 사신사는 송, 원, 명을 거쳐 청대까지 전개되었으며, 일본에는 10세기경 전파되었고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음택 사신사와 비교한 양택 사신사의 본질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택 사신사는 현무수두, 주작상무, 청룡완연, 백호준거(또는 순부)라 하여 사신의 모양과 형태로 길흉을 판단하지만, 양택 사신사는 사신의 거처 또는 행위와 관련된다. 둘째, 양택 사신사는 음택 사신사에 비해 개방적이고 생활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현대의 양택이나 도시에 대한 적용이 보다 현실적이다. 셋째, 음택 사신사에서 주작은 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물은 깨끗한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양택 사신사에서 주작을 오지(汙池 또는 汚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실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을 인정하고 있어 생활하수의 배출이라는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음택보다 규모가 큰 양택이나 양기의 구성에서는 양택 사신사의 적용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양택 풍수론의 방위론과 관련한 연구 및 음택 및 양택 풍수이론의 장점을 고려한 이론적 융합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8. 9. 10.

**심사일** 2018. 10. 6.

**게재 확정일** 2018. 11. 20.

**주제어(keyword)** 풍수(fengshui), 풍수지리(fengshui geography), 음택(grave sites in fengshui), 양택(housing sites in fengshui), 사신사(Four Gods)

### The Four Gods of Fengshui: Reinterpretation of the Significance of Grave and Housing Sites

**Cheon, In-ho**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origins, essence, type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grave and housing sites based on the conception of the Four Gods of fengshui.

In fengshui, the Four Gods of grave sites mean four mountains surrounding a hole. Namely, the rear is black warrior; the front is red phoenix; the left is blue dragon; and the right is white tiger. In contrast, the Four Gods of housing sites in fengshui pose a different conception. The rear black warrior means mountain; the front red phoenix means pond; the left blue dragon means river; and the right white tiger means road.

The conception of the Four Gods of housing sites is as old as that concerning the Four Gods of grave sites. The Chinese notion of the Four Gods of housing sites was transmitted to Japan in the 10th century. In Korea, it is recorded in the 18th-century literature.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 Gods of grave and housing sites are compared below.

Firstly, the Four Gods of grave sites relate to the judgment of good or ill luck based on the shape and type of mountains, whereas those of housing sites are associated with the dwellings or actions of the Four Gods.

Secondly, the former forms a closed space surrounded by mountains. But the latter concerns an open space with a pond or a field in the front. This helps to conduct various activities of life such as dwelling, production of foodstuffs and commercial areas.

Thirdly, the red phoenix may be substituted by water in the conception of the Four Gods of grave sites, and the water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it should be clean. Meanwhile, in its counterpart, the red phoenix is referred to as contaminated water, acknowledging the fact that contamination of water quality is inevitable to some extent in human life due to the discharge of household sewage, for instance. Therefore, this space is more closely related to actual lif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ion of the Four Gods of housing sites appears more practical for the composition of a large house or a city, which is greater in scale than a tomb. Further, a new theory based on a merging of the two branches of fengshui thought may be presented in future studies.